리처드 브랜슨 첫 우주관광 성공

英 억만장자 88㎞ 고도 비행
베이조스 보다 9일 앞서
억만장자들 '스타워즈' 개막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왼쪽) 버진그룹 회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트루스오어컨시퀀시 인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첫 우주관광에 성공한 뒤 동료 승무원을 향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다.

브랜슨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기준 오전 7시 40분께(현지시간) 자신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VSS 유니티'는 500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선인 'VMS 이브'에 실려 미국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고 1시간 뒤 지상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71살 브랜슨, 우주 가장자리 88.5㎞ 고도까지 1시간 비행='유니티'에는 모두 6명이 탑승했다. 브랜슨과 버진 갤럭틱 소속 조종사 2명, 임원 3명이 우주 관광 체험에 나섰다.

오는 18일 71살 생일을 맞이하는 브랜슨은 탑승에 앞서 우주 비행사 일지에 서명하고 영국 첩보원 영화 캐릭터 '007' 제임스 본드를 연상시키듯 "더블오 원, 스릴 면허(Astronaut Double-oh one. License to thrill)"라고 썼다.

'이브'가 동체 아래에 '유니티'를 매달고 8.5마일(13.6㎞) 상공에 도달하자 '유니티'는 '이브'에서 분리돼 음속 3배인 마하3의 속도로 우주의 가장자리를 향해 날아올랐다. 브랜슨은 고도 55마일(88.5㎞)까지 도달해 약 4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microgravity) 상태를 체험한 뒤 지구로 귀환했다. 유니티에서 내린 브랜슨은 주먹을 불끈 쥐며 아내와 자녀, 손주를 껴안았고 관중은 축하의 환호성을 질렀다.

브랜슨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17년 동안의 노고가 있었다"며 우주 관광 시범 비행을 성공시킨 버진 갤럭틱 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억만장자 '스타워즈' 개막…브랜슨, 베이조스보다 9일 먼저 등판=브랜슨은 이날 직접 우주 비행기에 탑승함으로써 억만장자들이 벌이는 '스타워즈 3파전'에서 첫 등판의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의 우주 비행보다 9일 빨랐다.

브랜슨의 이번 우주 비행은 우주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판촉 전략이다. 버진 갤럭틱은 내년부터 완전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구상으로, 약 25만달러(2억8000만원) 가격에 600여장의 우주 관광 티켓을 예약 판매했다.

베이조스는 오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2주년 기념일에 맞춰 남동생 마크와 82세 여성 월리 펑크 등과 함께 직접 우주 관광 체험에 나선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도 오는 9월 일반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비행에 도전한다.

◇베이조스·머스크, 축하 메시지…'진짜 우주관광' 놓고 신경전= 베이조스와 머스크는 브랜슨의 첫 우주 관광을 축하했다. 베이조스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비행을 축하한다"면서 자신도 '우주 관광 클럽'에 어서 빨리 가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뉴멕시코주 발사장에서 브랜슨의 우주 비행을 직접 지켜봤다. 머스크는 브랜슨의 출발에 앞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고, 브랜슨은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베이조스와 머스크는 브랜슨을 겨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베이조스는 최근 블루 오리진의 우주 로켓이 브랜슨의 우주 비행기보다 더 높이 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 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인 '카르만 라인'(karman line)을 넘어야 우주로 정의하는데 베이조스는 브랜슨의 우주 관광은 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진 갤럭틱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연방항공국(FAA)이 고도 80㎞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인들의 우주 궤도비행과 화성 이주까지 추진 중인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우주에 도달하는 것과 (더 먼) 궤도까지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갤럭틱의 우주 관광을 한 수 아래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중국 쓰촨성 홍수로 이재민 72만명…베이징도 올해 최대 폭우

시간당 200㎜ 폭우 피해 속출

중국 쓰촨성에 시간당 200㎜에 달하는 폭우가 내려 이재민 72만여 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중국 매체 샤오샹천바오와 펑파이 등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쓰촨 지역에 폭우가 내려 바중)시와 다저우시 등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폭우와 홍수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겼다.

신문은 국가 자연재해 통계 시스템을 인용해 전날까지 쓰촨성 6개 시·31개 현에서 이재민 72만 2000 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주민 10만9900여 명도 대피했다. 또 주택 459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농경지 2만6000㏊도 물에 잠기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21억5000만 위안(약 38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쓰촨성은 긴급구조대를 편성해 저지대에 갇힌 113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산시성과 허베이성 등에서도 폭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 중국기상대는 전날 오후 6시 베이징, 허베이, 산시 지역에 폭우와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며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의 기상 경보는 총 4단계이며,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 아래로 오렌지색·황색·청색경보가 있다.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폭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베이징 재난 당국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시간당 10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은 전날 항공편 711편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도 285편을 취소했다. 또 베이징과 허베이, 산시 등을 오가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된 상태다. 베이징 버스 그룹도 교외 지역을 운행하는 일부 버스 노선의 운행을 중지했다.

베이징시 재난 당국은 "12일 하루종일 베이징에 큰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며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기관과 기업들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11일 앞두고 도쿄에 네 번째 긴급사태

대규모 행사 입장객 수 제한
올림픽·연휴 겹쳐 효과 미지수

올림픽 개막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지인 도쿄에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네 번째 선포됐다.

일본 정부는 12일 수도 도쿄도(都)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발효했다. 긴급사태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이다. 애초 11일 긴급사태가 종료할 예정이던 오키나와현의 경우 기간을 8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과 오사카부에 적용 중이던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도 같은 시점까지 연장됐다.

도쿄에 긴급사태가 발효된 것은 작년 4~5월, 올해 1~3월, 4~6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은 이달 23일, 폐막식은 다음 달 8일 예정돼 있으며 대회 전체가 긴급사태가 발효된 가운데 진행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사태 기간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지 말고 오후 8시에 영업을 종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에는 요청을 수용하는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술 판매 억제를 유도했으나 이번에는 국세청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주류 도매업체에 요청하는 등 압력 수위를 높였다.

긴급사태가 발효된 지역과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행사는 입장객 수가 5000 명 이하 혹은 시설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긴급사태로 감염 확산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긴급사태가 되풀이되면서 긴장감이 줄어드는 분위기도 보인다.

트위터에서는 "도쿄에 또 통상(通常·일상적인 상태)사태 선언이 내려진다"고 비꼬거나 "이미 비상사태가 너무 일상적이니 통상사태선언을 하는 편이 알기 쉽다"고 비아냥대는 게시물도 보인다.

올림픽이 본격화하면 외출 인파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8월 중순 일본 연휴에는 고향 방문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막을 12일 앞둔 11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의 레인보우 브릿지와 오륜 조형물 상공에서 벼락이 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일 수도 도쿄도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발효했다. 발효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이다. 도쿄에 긴급사태가 발효된 것은 작년 4월 이후 4번째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올림픽 관람객 포기 '도미노'

완전 무관중 주장 확산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때 일부 지역 경기장에 관람객을 들이는 계획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 등 대부분 경기장에서 무관중 경기를 하기로 했지만, 관람객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자체 간에 신경전 분위기도 보인다.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참가한 가운데 전날 온라인으로 열린 지사회 회의에서 사타케 노리히사 아키타현 지사가 전면 무관중 대회 실시를 주장했다. 사타케 지사는 "죄송하지만, 전면 무관중으로 하는 편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에는 "사람 수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입장권 구매자는 (감염이 많은) 수도권이 많은 게 아니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올림픽 때 아키타현에서 예정된 경기는 없기 때문에 사타케 지사의 발언은 유관중 경기를 추진하는 다른 지역을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앞서 도쿄도,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후쿠시마현, 홋카이도 등 6개 지역은 무관중 경기가 결정됐고 미야기·이바라키·시즈오카현 등 3개 지역이 유관중 경기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7~8월에 연휴에 여행하거나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집단 감염이 각지로 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관중 경기를 계획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요시히로 지사는 사타케 지사의 발언에 반발했다.

결국 지사회는 관람객 수용에 관한 언급을 뺀 제언을 마련했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연합뉴스

도초도 섬 내 시세 9억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오피스텔 매매 임대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8층, 계약 108㎡ 전용 67㎡
- **사무실 전용**, 창가, 전망 좋음
- 매매 – 1억1000만원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임야 661㎡, **지분매매**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